

2006년을 보내며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했던 2006년 한 해가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 해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한국 IT 산업은 국내외로 많은 도전을 받은 한 해였다.

올 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가·환율 상승 등의 악재로 어렵게 시작했으나 월드컵 특수로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 등 후발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 급할 줄 모르는 원화 절상, WTO/FTA 문제 등이 국내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장밋빛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국내 IT산업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 초 HSDPA, WiBro, DMB 등 새로운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세계 제일의 IT 강국임을 또 한 번 확인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IT 수출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인 107.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IT 수출증가율도 올 들어 가장 높은 16.6%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IT 수출증가세는 윈도 비스타 출시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신규 휴대폰의 유럽·북미 시장 반응 호조, D-TV 가격 하락에 따른 패널 수요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당분간 활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회는 올 한 해 다양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노력했다. 특히 차세대 사업 발굴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실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충실한 교육과 엄격한 검증에 더욱 매진한 한 해였다.

협회는 올 해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WTO와 FTA 협상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WTO/FTA 전기/전자부문 통상협상'에 대응하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한-미 FTA 협상대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또 정보통신 관련 31개 단체가 함께 모여 한 해의 전



이기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회장

망과 각오를 다지는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정보통신 관계자는 물론, 회원사들에게도 한 발 앞선 정보를 전달하고 한 해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EXPO COMM WIRELESS KOREA) 2006 전시회/세미나'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인 '2006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최를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꾸준히 회원사들의 정보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협회는 또한 국내 IT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미국의 유명 전시회인 CES를 비롯하여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 터키 등의 해외 유명 전시회 진출을 지원했으며, 인니-말린과 터키 등에 IT협력단 파견을 통해 1억달러를 상회하는 상담 실적과 아울러 1400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협회는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활성화에 필수적인 'FTTH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LBS산업협의회'와 정보화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등을 운영,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에 대한 분위기 조성하고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올해 8회째를 맞아 보다 뛰어나고 독창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 미래 IT 산업을 이끌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수

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자리를 잡는 등 벤처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IT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독려하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IT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멀티미디어 기술대상'과 함께 차세대 기술의 총아인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상을 적극 반영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수상하는 '모바일 기술대상'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의 일본취업IT인력연수사업 경우, 올해 총 11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이 중 일본취업자 수는 91명으로, 취업률 82.7%를 달성했다. 또한 자격검정사업을 통해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6개 종목 11개 등급에 1만7천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회는 IT산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도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 한 해는 국내 IT산업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곳곳이 세계 최강의 IT 선진국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앞서가는 도약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협회는 200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국내 IT산업의 대표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한 발 앞서는 정보력과 보다 깊이있고 다양한 대 회원사 대상 서비스로, 회원사의 이익증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었던 회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